

# 이동형 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

• 이태수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 서 론

2001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35만 명으로서 전체인구의 7%를 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를 초과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그림1). 이에 따른 국내 전체진료비 대비 노인 진료비가 2003년에 이미 21%를 초과하였으며(그림2), 선진국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점들이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치우개선에 대한 요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택환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인 노인들 및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헬스케어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즉, 환자 및 의사가 공간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의료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생체신호 계측 및 자동진단-응급경보가 가능한 휴대형 무선 생체 계측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용 무선통신을 위해 FCC가 WMDS(wireless medical telemetry service)용으로 14MHz의 대역폭을 전용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VitalCom사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PatientNet을 구축하여 무선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 및 의사의 공간적 구속을 제거할 수 있게 하

고 있다[1]. 이에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하고 있는 인터넷 응용기술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이동형 헬스케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기술 개발에 등한시 할 경우, 국내 이동형 헬스케어 시장의 잠식은 시간문제일 것이며, 이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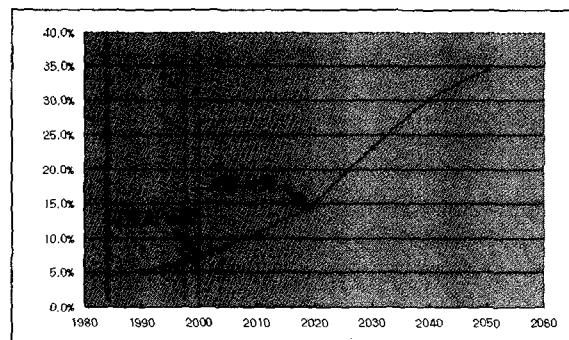


그림 1 65세이상 인구비, 2000년:7.2%, 2019년:14.4%  
(통계청 20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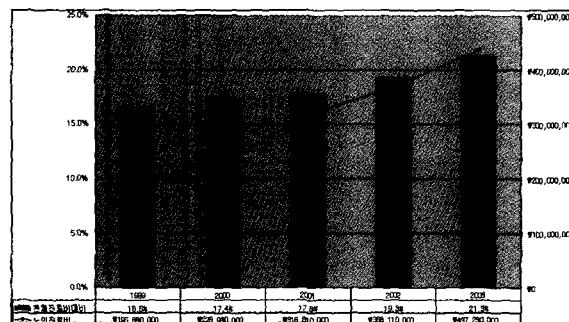


그림 2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추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생체센서의 무선화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생체신호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진단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어야 하고 응급시에 경보를 울려서, 환자가 대처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무선으로 원격의사 및 원격전문가 시스템에 이 상황을 알려주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론

본고에서는 이동형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대표적인 장치인 PDA의 헬스케어 응용에 대해 의료정보 및 의료기기의 관점에서 사례 위주로 현황을 알아본다. 또한 통신에 요구되는 표준 및 주파수대역 문제에 대해 요약하고, 유럽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비헬스에 대해 소개한다. 이는 신체영역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휴대형 진단치료기개발센터의 연구 내용 중에서 주로 의료단말기 기반의 원격생체계측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이동형 헬스케어의 정의

미래의 이동형 헬스케어 사업을 주도하는 모임(initiative)인 모카(MoHCA)에서는 이동형 헬스케어가 이동형 케어(mobile care)는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동형 CT VAN이나 이동형 수술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야를 제한하고 있다[2]. 무선통신 인프라 환경에서 이동형 무선통신 및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는 헬스케어를 말하며, 스마트폰, PDA, 테블릿 PC 및 랩탑 등이 이 분야에 사용되는 장치에 해당한다. 정의 자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점차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IOM(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원격진료(telemedicine)란 “의사와 환자가 떨어져 있을 때,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3]. 그러나 일반적 의미의 헬스케어보다는 임상적 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헬스케어의 경우, 텔레헬스(tele-health)라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보험사와 공중보건분야가 포함되어 더 넓은 의미의 이헬스(e-health)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 무선통신과 임베디드컴퓨팅 기술 즉, 이동형컴퓨팅 기술이 사용되어 환자의 이동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이동형 헬스케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3).

이동형 컴퓨팅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일종으로서, 유선 혹은 무선 통신을 사용해서 가끔씩 연결되는 노마딕컴퓨팅과 대비되는 것으로, 무선통신을 사용해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동형 컴퓨팅에는 휴대형, 포켓형 및 착용형이 있다. 휴대형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포켓형은 손위에 얹어 놓을 수 있거나 포켓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착용형은 핸드프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그림4). 이와 같은 이동형 컴퓨팅 기술은 의료분야에 응용되어 휴대형 의료기기, 포켓형 의료기기 및 착용형 의료기기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이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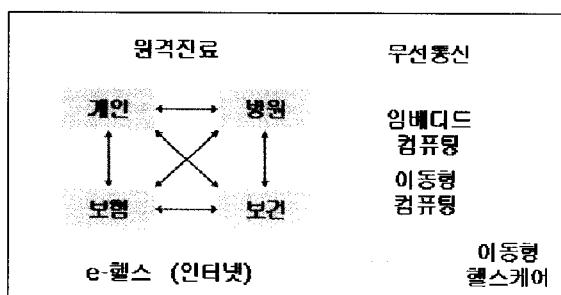


그림 3 이동형 헬스케어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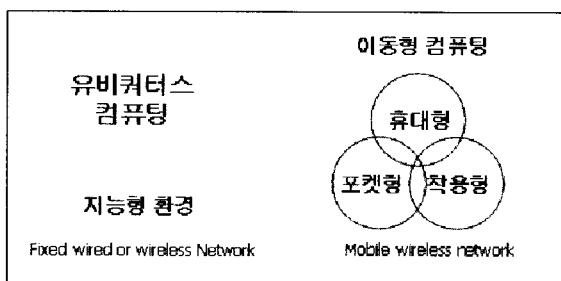


그림 4 이동형 컴퓨팅의 개념도

라, 최근 국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주요 연구개발 대상 분야로서 지목되고 있다.

### PDA의 이동형 헬스케어 응용 사례

이동형 헬스케어에서 대표적인 정보단말기라 할 수 있는 PDA의 응용 사례는 의료정보 및 의료기기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의료정보분야의 응용에서는 의료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의료용 단말기 형태이며, 대표적인 포켓용 약사전에는 이포크라테스(ePocrates)가 있고, 의학용 계산기에는 메드칼크(MedCalc)가 있다. 진료일정 POC처방 및 차지캡처 기능을 가진 이피지션(ePhysician)이 있으며, 소견 차트기록 및 약처방 전달까지도 가능한 포켓차트(PocketChart)가 있다(그림5)[4]. 의료기기분야의 응용에서는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텔레헬스기기 형태로서, 환자의 일상생활중의 헬스상태 감시용으로는 라이프셔츠(LifeShirt)가 있고, 중환자 및 만성질환자 감시용으로 페이션트넷(Patientnet)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술은 응급, 약전, 소방 및 극한환경 등에 응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DIA(Diabetes Internet Appliance)는 캐나다의 워털루대학에서 개발된 것으로, 당뇨병환자의 혈당측정장치에 PDA를 연결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원격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하고, 웹형식으로 입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5]. 이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PDA 응용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그림6). WISE는 미국 알라바마대학에서 개발한 무선 감시

장치로서, 환자의 머리와 가슴에 부착된 EEG, ECG 센서 및 손목에 부착된 운동센서에서 발생된 생체신호를 916MHz의 RF무선통신으로 개인서버에서 수신하여, 무선인터넷으로 원격서버에 실시간상태를 송신하는 시스템이다[6]. 여기서 개인서버가 PDA로써 구현되는 것으로서, 무선망과의 연결을 위한 게이트웨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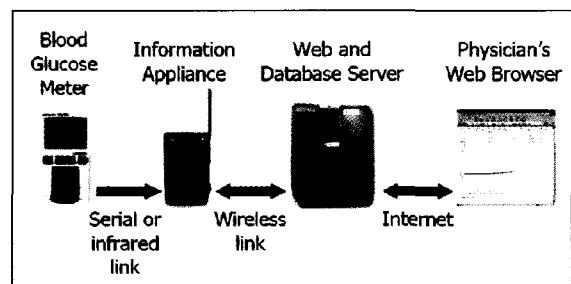


그림 6 DIA(Diabetes Internet Appliance) 구성도

### 응급환자 및 중환자 관리 응용 사례

이동형 생체계측이 가장 적합한 분야 중의 하나가 응급의학이다. DARPA와 두 개의 콘소시움 즉, TCIMS 와 NII-HIN에서는 공동으로 응급정보관리체계를 개발했는데, 환자의 응급정보를 필드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해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7]. 여기서 개인 데이터 감시장치(PDM)가 PDA의 응용분야로 기대되며, 별도 노트북의 중개 없이도 바로 외상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atientNet은 WMITS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2001년 IEEE Spectrum에도 “Unhooking medicne”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는 환자의 머리맡에 있는 트랜시버에서 무선으로 송신되는 생체신호가 의사가 휴대하고 있는 Mobile viewer에서 진찰되며, 전체적으로 Mission control center에서 중앙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다(그림7). 비폐를 응급상황정보 전달에 이용한 예도 보고되고 있으며, 비폐의 문자 및 그래픽 표시기능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환자의 현상태를 감시하는 것으로, ECG를 감시하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경고해줄 수 있다. ECG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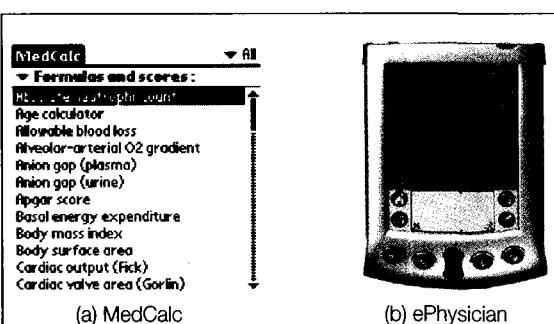


그림 5 PDA의 의료정보분야 응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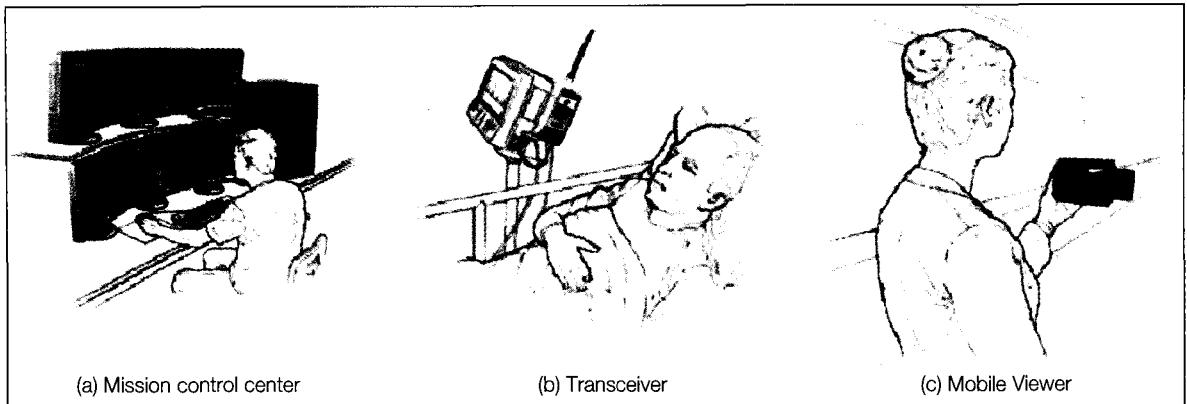


그림 7 PatientNet

형을 표시할 수 있으며, 자동해석된 문제점을 활력신 호와 함께 표시해서, 의료진이 즉시 알 수 있게 해서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 스포츠의학 및 일상생활중의 건강모니터링 응용 사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의 체온, 발한상태, 맥박수를 측정하는 밴드가 있고, 머리의 충격을 측정하는 헬멧이 있어서 이들로부터 무선통신을 통해 전달되어 온 선수들에 대한 현 상태를 PDA상에서 감독이 파악할 수 있어 선수교체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애베레스트 극한원정(EEE)에서는 이동중인 등반가의 위치 및 건강상태를 감시하는 연구도 있으며[8], 야전에서 병사의 건강상태를 감시하는 군사적인 응용도 있다. 일상 생활중의 건강모니터링에 있어서 비보메트릭스사의 라이프셔츠는 착용형 장치의 대표적인 예이며(그림 8)[9], 마이크로베디칼의 포켓뷰이씨지는 포켓PC를 사용해서 12채널까지의 심전도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SHL의 카디오팋켓은 지갑형태의 1채널 심전도 감시장치이다. 이와 같이 휴대형, 포켓형, 착용형의 다양한 이동형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일상생활 중의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일상용품들에 내장된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표준

현재 IEEE에서 진행중인 이동형 헬스케어의 표준으

로는 의료정보측면에서의 IEEE1073 표준이 있고, 스마트무선센서표준인 IEEE 1451이 있다. 따라서 상품화에는 이러한 표준을 준수해야 수출시에 유리할 것이다. 주파스 대역도 중요한데, 의료원격계측 전용의 주파수 대역인 WMTS가 있고, 산업계표준인 ISM밴드가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의료기기진흥협회(AAMI) 학술대회 자료에 따르면, WMTS가 EMI, EMC 관점에서 의료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Wi-Fi는 POC장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표1)[10]. 현재 병원에서는 UHF대역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만간 국내에서도 별도의 대역폭을 할당하여야 할 것이다.

#### EU IST 프로젝트

유럽연합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헬스, 이동형헬스 프로젝트들을 진행시켜 왔고, 현재 진행중인 모비헬스는 이동형헬스케어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 소개 하려고 한다. 모비헬스는 환자에게 보다 이동성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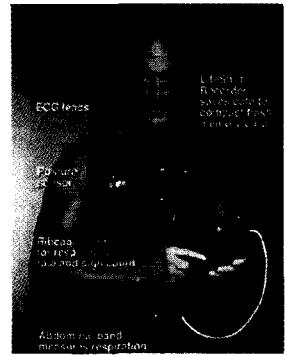


그림 8 LifeShirt

표 1 의료용 주파수대역의 비교표

Frequency bands	traditional telemetry	Ambulatory monitor	Wireless bedside	Clinical tools
VHF	△	△	△	×
UHF	△	△	△	×
WMTS	○	○	○	△
Wi-Fi	×	×	×	○

(O: ideal, △: marginal, X: unacceptable)

장하는 건강감시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5나라의 14개 파트너가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이다[11]. BAN(Body Area Network)에서 측정되는 활력 징후,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를 휴대폰을 통해 센터로 전송하고, 병원의 의사가 건강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그림9). 생체신호는 프로트엔드에서 블루투스를 통해 PDA로 전달되고, GPRS나 UMTS를 통해 센터의 호스트로 전달된다. 임베디드 유닉스 형태인 BAN OS가 PDA에 포팅되어 있으며, Java를 통해 인터페이스 된다. 이동성이 완전히 보장된 헬스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환자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환자, 병원, 보험사 등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액추에이터를 통해 응급조치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센서와 프론트엔드와의 연결이 유선이어서 무선BAN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들이 남아 있으며, 개발된 시스템은 2002년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메디카 2002에서 전시된 바 있다. 2004년 2월까지 4나라에서 9가지 임상 응용 실험을 3단계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임상적 유용성 및 시장 가능성에 대한 기초보고서가 공식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이동형 헬스케

어를 설계하는데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기기들의 완성도 및 휴대의 간편성들이 아직 환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실험대상의 수도 단계별로 수십명 내외여서,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통계적 측면에서 자료가 미흡한 면이 있으나, 이들이 보완된다면, 환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PDA 기반의 원격생체계측

본 연구자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휴대형 진단치료기기개발센터(UBDC)” 사업의 “신체영역통신망 기반 의료단말기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목적은 기존 의료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최소화하고 유비쿼터스 개념을 적용시켜 사용자(환자, 의사, 간호사)가 항상 휴대함으로써 언제-어디서나 진단-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그림10과 같은 과제 구성도를 기본 개념으로 한다. 따라서 3세부에서 개발된 소형의 의료용 센서에서 출력된 생체신호를 1세부에서 개발한 신체영역의 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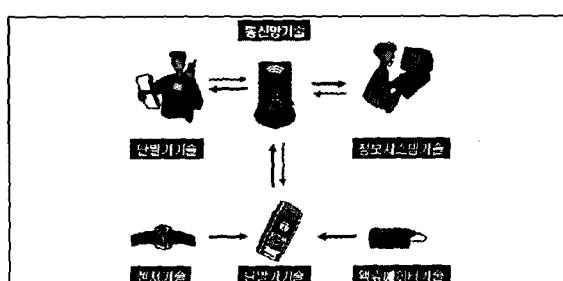


그림 9 MobiHealth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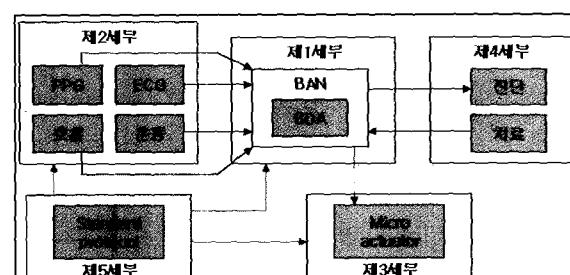


그림 10 UBDC의 과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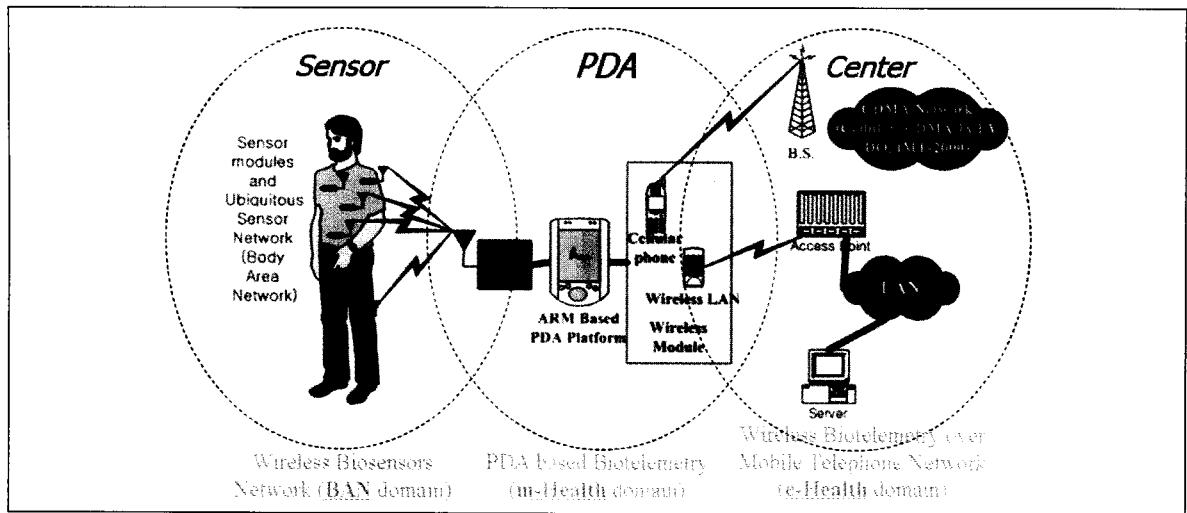


그림 11 신체영역통신망 기반 휴대형 의료단말기 시스템의 구성도

통신망을 통해 의료단말기에 입력하고, 4세부에서 개발된 진단알고리즘에 따라 환자의 현상태를 파악한 후, 3세부에서 개발된 소형 액츄에이터를 동작시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르는 환자의 생체데이터의 획득 및 전송은 5세부에서 개발된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각 모듈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과제는 의료단말기를 중심으로 무선센서측과 원격의료센터측을 무선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일상생활중인 개인의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림11). 현재 PDA를 이용해서 생체신호 계측 시뮬레이션을 완료했고, 3.5인치 규격의 싱글보드컴퓨터에 임베디드OS를 포팅해서 원격서버에 전송하고 검색하는 것까지 진행되어 있다. 이동중의 생체계측을 일상생활중인 환자 혹은 정상인에 아무런 구속 및 제약 없이 하려면 무선생체센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신체영역통신망이 요구되며, 결국 무선생체센서가 핵심적인 연구과제인데, 이는 유씨 버클리대학의 타이니OS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12], 특히 MEMS기술을 응용한 가속도센서를 사용해서 타과제들에서 의료용 센서들이 개발되기 전에 환자의 동작에 대한 감시를 해봄으로써 단말기와 센서가 동시에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

며, 최종적으로 의료단말기를 휴대함으로써 이동형 헬스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 결 론

의료환경에서는 환자, 의사가 모두 이동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기기는 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휴대형에서 착용형으로, 이식형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환경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의료기기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정보로, 지식으로, 그리고 지혜로 되는 모든 환경에서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이동형 헬스케어의 최종 목적인 것이며, 이 분야에 대한 본 연구자의 비전이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0405-ER01-0304-0001)

### [ 참 고 문 헌 ]

- [1] Samuel K. Moore, "Unhooking Medicine", Spectrum , IEEE, Janyary 2001, Page(s):107-110

- [2] Mobile Healthcare Alliance(MoHCA), <http://www.mohca.org/MoHCAintro0103.pdf>
- [3] Institute of Medicine(U.S.), Committee on Evaluating Clinical Applications of Telemedicine, “Telemedicine: a guide to assessing telecommunications in healthcare”, Marilyn J. Field, editor,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6.
- [4] Sandra Fischer, Thomas E. Stewart, Sangeeta Metha, Randy Waw, Stephen E. Lapinsky, “Handheld Computing in Medicin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 Volume:10, Number:2, May 2003, Page(s):139-149
- [5] Bamdad Afra, Faisal Karmali, Gordon Li, Wallace Leung, “Diabetes Internet Appliance”, CSIDC 2000 project report of University of Waterloo, 2000.
- [6] E. Jovanov, J. Price, D. Raskovic, K. Kavi, T. Martin, R. Adhami,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in Telemedical Environment”, Third IEEE EMBS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in Biomedicine Workshop of the International Telemedical Information Society ITAB-ITIS 2000, Arlington, Virginia, November 2000, Page(s):22-27
- [7] Thomas G. Holzman, “Computer-human interface solutions for emergency medical care”, Interactions, ACM, Volume:10 Issue:3, May 1999, Page(s):13-24
- [8] Richard Satava, Peter B. Angood, Brett Harnett, Christian Macedonia, Ronald Merrell, “The Physiological Cipher at Altitude: Telemedicine and Real-time Monitoring of Climbers on Mount Everest”, Telemedicine Journal and e-Health, Volume:6 Number:3, 2000, Page(s):303-313
- [9] Continuous Ambulatory Monitoring, <http://www.vivometrics.com/site/system.html>
- [10] Michael K. Dempsey, “An Overview of Various Wireless Data Links for Medical Applications”, AAMI 2001 Wireless Technology Overview, 2001
- [11] <http://www.mobihealth.org>
- [12] <http://www.tinyos.net>